

21세기의 책, 인터넷

송기도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이란 무엇인가? 책(冊)은 중국 주나라 때 글을 쓴 대쪽을 가죽으로 엮어 말아 간직한 것이다. 따라서 글자 자체가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 물론 서양에서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자라는 풀인 파피루스(papyrus)에 글을 쓴 것이 책의 기원이다. 따라서 영어 paper나 독일어 papier, 스페인어 papel 등은 모두 파피루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라이프》지는 지난 1천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책의 전파'를 인류의 가장 큰 업적으로 뽑았다. 만일 책의 대량보급이 없었다면 최근 1천년 동안 인류의 업적은 1/10 아니 1/100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책은 인류에 깊은 영향을 줬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책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익히 들어왔다. 예를 들면, 2천년 전에 씌어진 공자의 “남자는 일생 동안 다섯 수레만큼의 책을 읽어야 한다(男兒須讀五車書)”라는 표현이라든가, 안중근 의사의 “하루도 책을 읽지 않고 지나가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책읽기의 중요함을 잘 지적했다. 공부하기가 지겨울 땐 옛날 사람들이 무척 부러웠던 적이 있었다. 예전 선비들은 사서삼경을 포함해 ‘필독서 몇권’ 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외우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처럼 신문이나 잡지도 없었고, 또 매일같이 수십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니 얼마나 한가했겠

가? 매일같이 신문·주간지·월간지·전공서적을 읽어대야 하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책에 파묻혀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다버리는 종이의 양만 해도 만만치 않다. 2천년 전에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은 이제 ‘다섯 트럭’도 넘는 분량이 됐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최근 몇년 전부터 정보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수천년 동안 인간의 최대 발명품은 ‘종이’였다. 종이를 통해 생각과 정보를 동시대인에게 또 후손에게 제각각이나마 전해 줄 수 있었다. 게다가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류의 정보화 능력은 수백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 5백년 동안 ‘책’은 인류발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인터넷은 또 다른 변혁을 가능케 했다. 한국의 시골집에 앉아서 아마존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집의 일처럼 알 수 있게 됐다. 멕시코의 사빠띠스마 농민군의 활동이 중계방송되듯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미국이나 유럽의 신문·잡지·책을 시간에 관계없이 볼 수 있다. 이제 시간과 장소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인류가 지구라는 같은 장소와 시간에 모여 있게 됐다.

또다시 인류의 정보화 능력은 수백, 수천배가 늘어나게 됐다. 아직 그 결과는 모른다. 하지만 파피루스가 사라졌듯 ‘책’도 서서히 영향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전통을 자랑하는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사는 5년 전 종이를 통한 책의 보급에 한계를 느끼고 인터넷에 백과사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99년 10월 2일에는 그 사용을 무료로 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이제 “인터넷에 길이 있다”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